

# 10월 광고경기 9월보다 호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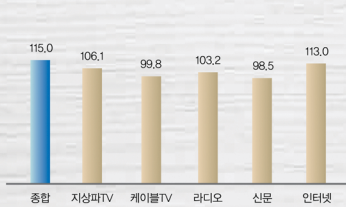
10월 국내 광고경기는 전월인 9월에 비해 호전될 전망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는 국내 4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광고경기예측지수(KAI)를 조사한 결과 10월 예측지수가 115.0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월별 KAI가 100을 넘을 경우 광고비 증가가 예상된다 의미이고, 100 미만은 광고비 감소가 예측됨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국내의 불안정한 경제 여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광고시장의 전형적인 비수기인 여름을 지나가면서 광고주들의 위축된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KOBACO측은 설명했다.

매체별로는 지상파TV(106.1), 케이블TV(99.8), 라디오(103.2), 신문(98.5), 인터넷(113.0)으로 조사됐으며, 업종별로는 패션(156.9), 수송기기(154.1), 컴퓨터 및 정보통신(145.7) 등의 업종에서 광고비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식품(95.6), 제약 및 의료(99.9), 출판(76.3), 유통(87.7) 업종에서는 광고비 감소가 예상된다.

광고경기예측지수조사(KAI : Korea Advertising Index)는 방송광고비를 포함한 국내 주요 광고매체의 경기변동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광고산업 경기를 진단할 목적으로 매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광고주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있다. **K A I**

〈표 1〉 매체별 광고경기 전망



〈표 2〉 업종별 광고경기 전망

